

## 충남 일부지역 남자 중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김유린 · 김은진<sup>1</sup> · 최미경<sup>1†</sup>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 <sup>1</sup>공주대학교 식품과학부

###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Free Foodservice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gnam

Yu - Rin Kim · Eun - Jin Kim<sup>1</sup> · Mi - Kyeong Choi<sup>1†</sup>

Major in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40-702, Korea

<sup>1</sup>Division of Food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Yesan 340-702,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a free foodservice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at male middle schools with paid foodservice (PFS group, 250 students) and with free foodservice (FFS group, 250 students) in Chungnam. Average age of students in the PFS group was 13.1 while that of FFS students was 12.8 years. Exactly 88% of PFS students and 94% of FFS students responded that school foodservice is necessary, which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5$ ). As the reason for participating in foodservice, about 32% of the PFS students answered the school's request while 33.6% of FFS students answered nutrition,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 $P < 0.001$ ). Exactly 72.8% of PFS and 96.4% of FFS knew about FFS ( $P < 0.001$ ). More PFS students (86.4%) than FFS students (66%) answered they would not participate in foodservice if the FFS would be introduced and the quality of meal service would deteriorate. After initiation to FF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ssessment of foodservice: 77.6% of PFS students answered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foodservice would degrade, whereas 74.4% of FFS students answered that quality would not degrade ( $P < 0.001$ ). Satisfaction of foodservice was 2.3 points for FFS students,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2.5 points for PFS students ( $P < 0.001$ ). To sum up assessment of foodservice was positive, whereas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FS and FFS. Based on this research, households, schools, and governments should promote FFS in order to diminish financial pressure for students.

**Key words** : perception, satisfaction, free foodservice, middle school students

접수일 : 2014년 1월 28일, 수정일 : (1차) 2014년 3월 5일, (2차) 2014년 3월 11일, 채택일 : 2014년 3월 31일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Mi-Kyeong Choi, Division of Food Scien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4 Daehak-ro, Yesan, Chungnam 340-702, Korea

Tel : 82-41-330-1462, Fax : 82-41-330-1469, E-mail : mkchoi67@kongju.ac.kr

## 서론

청소년기의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공급하고 학부모에게는 도시락의 부담을 덜어주며 교육의 장으로서 의의를 갖는다(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7). 이러한 중고등학교 급식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을 시작으로 전면 확대 실시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2000).

학교급식의 중요성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이 2010년까지 이루어지다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 학생들의 차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이 공약사항에 거론되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면단위 중학교로, 2013년 3월에는 읍단위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충청남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2013년 3월 기준 중학교 187개교에서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학교급식의 양과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시단위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친환경 등 품질 좋은 식재료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12).

무상급식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Yoon 2012). 그러나 현재 무상급식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적 부담으로 해결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커져 시·도 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 의견 대립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Lee 2009; Hyun & Lee 2013). 따라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유기적인 관계로 급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도 제도화 하여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Yang 2013). 반면 교육재정의 절대적인 예산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학교 본원의 역할인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희생해가면서 무상급식이 절실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적용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다(Ha 2010). 또한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급식예산의 재정 충당으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감소로 교육현장의 질 저하 우려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Ha & Kim 2012).

한편 학교급식은 단순한 행정 중심의 운영보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여러 지역과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Kim 등 2002; Oh 등 2006; Song & Moon 2010). 하지만 무상급식 실시 후 학교급식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연구마다 조사지역이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따른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올바른 급식으로 자리 잡아 교육복지 실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학생의 성장발달과 정신건강 및 올바른 품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급식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체계적인 무상 학교급식의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충남 일부지역 유상급식을 이용

하는 남자 중학생과 무상급식을 이용하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충청남도 태안읍에 위치한 유상급식 시행 중학교 2개와 무상급식 시행 중학교 2개교 1~3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250부,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별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이었다.

### 2.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Kang 2011; Lee 2011; Kim 2012)를 기초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각 반 담임선생님의 협조 하에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 3. 조사내용

설문지는 일반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급식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신장, 체중의 4문항과 부모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월수입, 주거형태의 5문항이었다.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식을 먹는 이유, 학교급식의 필요성, 학교급식이 나에게 주는 효과, 학교급식에 대한 생각, 학교급식의 교육적인 역할의 총 5문항이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은 무상급식의 인지, 인지 경로, 필

요성, 필요한 이유, 기대효과, 바라는 점,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의 질 변화와 그에 따른 급식 거부 의사의 총 8개 문항이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급식과 관련된 총 20개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5점에서 '매우 불만족한다' 1점의 Likert 척도로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 4. 통계분석

본 조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program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조사 자료는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유상급식과 무상급식군의 구분에 따른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교차분석( $\chi^2$ -test)을,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unpaired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정은  $P <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 2와 같다. 평균 연령은 유상급식 학생이 13.1세로 무상급식 학생 12.8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 < 0.01$ ), 신장은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체중( $P < 0.01$ )과 체질량지수( $P < 0.001$ )는 유상급식 학생이 각각 58.5 kg과  $22.7 \text{ kg/m}^2$ 로 무상급식의 55.9 kg과  $21.9 \text{ kg/m}^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의 학부모 각각 41~50세가 67.6%,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상급식의 학부모 29.6%가 30~40세로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의 학부모는 51세 이상이 11.2%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유상급식 대상자가 무상급식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아버지의 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t-value
Age (years)	13.1±0.8 <sup>1)</sup>	12.8±0.6	13.0±0.7	3.236**
Height (cm)	159.6±12.2	159.6±7.2	159.6±1.0	-0.031
Weight (kg)	58.5±9.4	55.9±7.31	57.2±8.5	3.415**
BMI (kg/m <sup>2</sup> ) <sup>2)</sup>	22.7±2.4	21.9±1.7	22.3±2.1	4.384***

<sup>1)</sup> Mean±SD<sup>2)</sup> Body mass index

\*\*P&lt;0.01, \*\*\*P&lt;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Table 2. Characteristics on home environment of the subjects.

Questions	Answer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chi^2$ -value
Father's age (years)	30~40	74 (29.6) <sup>1)</sup>	3 ( 1.2)	77 (15.4)	84.511***
	41~50	169 (67.6)	219 (87.6)	388 (77.6)	
	51 or older	7 ( 2.8)	28 (11.2)	35 ( 7.0)	
Mother's age (years)	30~40	88 (35.2)	79 (31.6)	167 (33.4)	0.838
	41~50	144 (57.6)	150 (60.0)	294 (58.8)	
	51 or older	18 ( 7.2)	21 ( 8.4)	39 ( 7.8)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2 ( 0.8)	1 ( 0.4)	3 ( 0.6)	41.121***
	Middle school	19 ( 7.6)	72 (28.8)	91 (18.2)	
	High school	127 (50.8)	114 (45.6)	241 (48.2)	
	University	102 (40.8)	63 (25.2)	165 (33.0)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2 ( 4.8)	51 (20.4)	63 (12.6)	28.329***
	High School	156 (62.4)	138 (55.2)	294 (58.8)	
	University	82 (32.8)	61 (24.4)	143 (28.6)	
Father's job	Self-employed	96 (38.4)	151 (60.4)	247 (49.4)	24.925***
	Professional jobs	131 (52.4)	88 (35.2)	219 (43.8)	
	House husband	23 ( 9.2)	11 ( 4.4)	34 ( 6.8)	
Mother's job	Official/office worker	83 (33.2)	81 (32.4)	164 (32.8)	2.887*
	Housewife	84 (33.6)	73 (29.2)	157 (31.4)	
	Self-employed	60 (24.0)	76 (30.4)	136 (27.2)	
	Others	23 ( 9.2)	20 ( 8.0)	43 ( 8.6)	
Average income (won)	1~2 million	73 (29.2)	102 (40.8)	175 (35.0)	21.617***
	2~3 million	59 (23.6)	80 (32.0)	139 (27.8)	
	3~5 million	107 (42.8)	63 (25.2)	170 (34.0)	
	5 million or higher	11 ( 4.4)	5 ( 2.0)	16 ( 3.2)	
Residence type	Detached house	96 (38.4)	162 (64.8)	258 (51.6)	37.869***
	Apartment	130 (52.0)	66 (26.4)	196 (39.2)	
	Row house	24 ( 9.6)	22 ( 8.8)	46 ( 9.2)	

<sup>1)</sup> N (%)

\*P&lt;0.05, \*\*\*P&lt;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업은 유상급식 대상자는 전문직이 52.4%, 무상급식은 자영업이 60.4%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가정의 평균 월수입의 경우 유상급식 대상자는 300~500만원이 42.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무상급식은 100~200만원이 40.8%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주거형태는 유상급식 학생은 아파트가, 무상급식은 단독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 2.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학교급식이 필요한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학생이 88%, 무상급식 9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학교급식을 먹는 이유는 유상급식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먹으라고 해서가 32.4%로, 무상급식은 영양적이기 때문이 33.6%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학교급식이 나에게

**Table 3.** Perception of school meal service of the subjects.

Questions	Answer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chi^2$ -value
Necessity of school meals	Yes	220 (88.0) <sup>1)</sup>	235 (94.0)	455 (91.0)	5.495*
	No	30 (12.0)	15 (6.0)	45 (9.0)	
Reason for eating school meals	They are nutritious	75 (30.0)	84 (33.6)	159 (31.8)	94.071***
	School urges me to eat	81 (32.4)	34 (13.6)	115 (23.0)	
	They are part of school life	26 (10.4)	54 (21.4)	80 (16.0)	
	Every student eats	57 (22.8)	15 (6.0)	72 (14.4)	
	Parents urge me to eat	6 (2.4)	55 (22.0)	61 (12.2)	
	They are in hygienic conditions	5 (2.0)	8 (3.2)	13 (2.6)	
Effect of school foodservice	It is convenience	113 (45.2)	124 (49.6)	237 (47.4)	11.251*
	I can get along better with friends while eating together	96 (38.4)	102 (40.8)	198 (39.6)	
	They help me eat the food I previously disliked such as vegetables and kimchi	20 (8.0)	17 (6.8)	37 (7.4)	
	It's educational to learn table manners	12 (4.8)	7 (2.8)	19 (3.8)	
	My disease such as obesity and atopy was improved	9 (3.6)	0 (0.0)	9 (1.8)	
What are school foodservice?	Simply being served with a meal	93 (37.2)	84 (33.6)	177 (35.4)	68.424***
	The national welfare service	32 (12.8)	106 (42.4)	138 (27.6)	
	Something to improve my health	97 (38.8)	36 (14.4)	133 (26.6)	
	A part of education	28 (11.2)	24 (9.6)	52 (10.4)	
Educational role of school foodservice	It helps students get involved in other educational activities by eliminating hunger	134 (53.6)	136 (54.4)	270 (54.0)	10.15*
	It helps students know the table manners and rules	46 (18.4)	56 (22.4)	102 (20.4)	
	It gives other educational assistance such as making friends and physical activity	39 (15.6)	42 (16.8)	81 (16.2)	
	It doesn't do any good in education	25 (10.0)	8 (3.2)	33 (6.6)	
	It takes a role as a course of education	6 (2.4)	8 (3.2)	14 (2.8)	

<sup>1)</sup> N (%)

\* $P<0.05$ , \*\*\* $P<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주는 효과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학생 각각 45.2, 49.6%가 편리성 때문이라고 가장 높게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친구들과 밥을 같이 먹으며 더욱 친해진다는 응답이 38.4, 40.8%이었고, 유상급식의 3.6%가 비만, 아토피 등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나아진다고 응답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학교급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상급식 학생은 나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았던 반면, 무상급식 학생은 국가의 복지 서비스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학교급식의 교육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유상급식(53.6%)과 무상급식 학생(54.4%) 모두 배고픔을 없애 주어 다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식사예절 및 규칙을 아는데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각각 18.4, 22.4%였고 친구를 사귀고 체육활동을 하는 등 다른 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각각 15.6, 16.8%로 나타났으나 교육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유상급식 학생 10.0%로 무상급식 3.2%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

### 3.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4, 5와 같다. 무상급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학생이 72.8%, 무상급식이 96.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알게 된 경로는 유상급식 학생의 42.3%가 학교 선생님, 34.1%가 인터넷과 TV라 응답하였고 무상급식의 39%가 부모님, 37.8%가 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에 따른 급식 거부에 대한 응답은 유상급식, 무상급식 학생이 각각 86.4, 66%이었다( $P<0.001$ ).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에 대해 유상급식 학생의 77.6%는 저하된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무상급식을 경험한 학생들의 74.4%는 저하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유상급식 학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0.4%로 높았던 반면, 무상급식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83.2%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국가가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유상급식 학생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이용해 우리들의 건강을 좋게 하려는 것이라는 응답

Table 4. Awareness of free school meal service of the subjects.

Questions	Answer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chi^2$ -value
Awareness of free meals	I know it	182 (72.8) <sup>1)</sup>	241 (96.4)	423 (84.6)	53.437***
	I don't know it	68 (27.2)	9 (3.6)	77 (15.4)	
The route to know about FFS	School teachers	77 (42.3)	91 (37.8)	168 (39.7)	20.383***
	Parents	39 (21.4)	94 (39.0)	133 (31.4)	
	Internet, TV	62 (34.1)	56 (23.2)	118 (27.9)	
	Newspapers, books	4 (2.2)	0 (0.0)	4 (0.9)	
Would you reject the FFS according to the quality if the FFS were implemented?	Yes	216 (86.4)	165 (66.0)	381 (76.2)	28.684***
	No	34 (13.6)	85 (34.0)	119 (23.8)	
Do you think the quality of school meals will be worse after the FFS implemented?	Yes	194 (77.6)	64 (25.6)	258 (51.6)	135.339***
	No	56 (22.4)	186 (74.4)	242 (48.4)	

<sup>1)</sup> N (%)

\*\*\* $P<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이 52.4%,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무상급식을 하면 기대하는 점에는 유상급식 학생의 59.6%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느끼던 차별이 줄어들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무상급식의 62.4%가 부모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느끼던 차별이 줄어들 것 같다고 응답한 학생은 18.8%로 나타났다( $P<0.001$ ). 무상급식을 하면 바라는 점에는 유상급식 학생의 54.4%가 친환경 농산물 등 몸에 좋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의 37.6%는 급식의 맛이 더욱 좋아지는 것이라 응답하여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

#### 4.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총 20개 항목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5점에서 ‘매우 불만족한다’ 1점으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국 종류의 다양성은 무상급식 학생이 3.3점으로 유상급식 3.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그러나 반찬 배식량의 적당성, 반찬의 종류, 음식 온도의 적당성, 식사장소에 대한 온도의 만족도, 조리종사자 복장의 위생상태의 만족도, 음식과 식수 위생상태의 만족도, 조리종사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 배식 장소의 만족도, 식단에 따른 급식비의 적당성, 배식과 식사 시간의 적당성,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총 11개 항목은 유상급식 학생의 만족도가 무상급식

Table 5. Perception of free school meal service of the subjects.

Questions	Answer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chi^2$ -value
Do you think FFS is necessary?	Yes	74 (29.6) <sup>1)</sup>	208 (83.2)	282 (56.4)	146.041***
	No	176 (70.4)	42 (16.8)	218 (43.6)	
Why do you think the state implements a FFS?	Because it is included in the national welfare services	48 (19.2)	157 (62.8)	205 (41.0)	178.629***
	To improve our health by using safe food	131 (52.4)	5 (2.0)	136 (27.2)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needy students	55 (22.0)	76 (30.4)	131 (26.2)	
	Because it is a par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16 (6.4)	12 (4.8)	28 (5.6)	
What you expect from FFS?	It will reduce a financial burden of school foodservice from parents	55 (22.0)	156 (62.4)	211 (42.2)	101.536***
	It will reduce the discrimination that needy students have experienced	149 (59.6)	47 (18.8)	196 (39.2)	
	It will improve our health by using safe food	24 (9.6)	23 (9.2)	47 (9.4)	
	It will improve the national welfare standards	22 (8.8)	24 (9.6)	46 (9.2)	
What do you wish for FFS?	To use good materials such as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136 (54.4)	54 (21.6)	190 (38.0)	80.062***
	To be served with a better meal in terms of nutrition	47 (18.8)	84 (33.6)	131 (26.2)	
	To improve the taste of school meals	33 (13.2)	94 (37.6)	127 (25.4)	
	To be cooked hygienically safer	34 (13.6)	18 (7.2)	52 (10.4)	

<sup>1)</sup> N (%)

\*\*\* $P<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Table 6. Satisfaction with school meal service of the subjects.

Items of satisfaction	PFS students (n=250)	FFS students (n=250)	Total students (n=500)	t-value
Amount of cooked rice	3.3±0.5 <sup>1)</sup>	3.3±0.5	3.3±0.6	-0.810
Variety of cooked rice	3.1±0.6	3.0±0.5	3.1±0.6	0.702
Amount of soup	3.1±0.6	3.1±0.4	3.1±0.5	0.540
Variety of soups	3.1±0.6	3.3±0.5	3.2±0.5	-2.092*
Amount of side dishes	2.4±1.2	2.2±1.3	2.3±1.3	2.366*
Variety of side dishes	2.5±1.3	2.2±1.3	2.4±1.3	2.753**
Temperature of foods	2.4±1.3	2.1±1.3	2.3±1.3	2.948**
General taste of meals	2.3±1.2	2.0±1.2	2.3±1.2	1.902
Temperature of the dining place	2.3±1.2	2.0±1.1	2.1±1.1	3.537***
Facilities like a food distribution counter, return leftovers, and used utensils	2.3±1.2	2.1±1.2	2.2±1.2	1.569
Cleanliness of tray, spoon, chopsticks, and cups	2.2±1.2	2.1±1.2	2.2±1.2	1.453
Cleanliness of the dining room, the food distribution counter, chairs, and tables	2.0±1.0	1.9±1.0	2.0±1.0	1.216
Hygiene of the food distribution process	2.4±1.3	2.2±1.3	2.3±1.3	1.883
Cleanliness of meal service employees' dresses	2.4±1.4	2.1±1.3	2.3±1.4	2.586*
Cleanliness of food and water	2.7±1.5	2.2±1.5	2.5±1.5	3.463**
Kindness of meal service employees	2.6±1.4	2.1±1.4	2.4±1.4	3.481**
Adequacy of food distribution place	2.6±1.4	2.2±1.3	2.4±1.4	3.362**
Cost according to the menu	2.3±1.2	2.0±1.2	2.1±1.2	2.367*
Food distribution time and the mealtime	2.4±1.3	2.2±1.3	2.3±1.3	2.292*
General satisfaction with the school meals	2.5±1.4	2.2±1.3	2.4±1.4	2.960**
Mean scores	2.5±1.1	2.3±1.2	2.5±1.1	1.750*

<sup>1)</sup> Mean±SD, score: very satisfied (5)~very dissatisfied (1)

\*p<0.05, \*\*p<0.01, \*\*\*p<0.001

PFS: paid foodservice, FFS: free foodservice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0개 항목의 평균 만족도도 유상급식 학생이 2.5점으로 무상급식의 2.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0.05$ ).

## 고 찰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견해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무상급식 학생이 유상급식 학생보다 무상

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급식 만족도는 무상급식 학생이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사항에서 연령, 체중 및 체질량지수는 유상급식 학생이 무상급식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유상급식 학생 부모의 연령이 낮고 학력과 소득이 무상급식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교의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면단위 중학교로, 2013년 3월에는 읍단위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본 조사 당시 대상자의 지역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태안군의 같은 지역에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별하였지만,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지 않아서 유상급식 학교는 태안군 읍지역에서, 무상급식 학교는 태안군 면지역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의 필요성, 효과, 역할과 같은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무상급식 학생은 유상급식 학생에 비해 ‘학교급식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은 영양적이기 때문에 먹는다’, ‘학교급식은 국가의 복지 서비스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2)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실시해서가 48.5%, 6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영양적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먹는다가 24%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유상급식 학생의 경우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먹라고 해서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과 유사한 반면, 무상급식 학생은 학교급식이 영양적이기 때문에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유상급식 학생보다 학교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상급식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유상급식 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결과와도 일치한다. 학교급식에 대한 개념에서도 Kim(2012)의 선행연구는 나의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히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라는 응답이 28.3%로 나타나 본 연구의 유상급식 학생의 응답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무상급식 학생은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학교급식이 복지 서비스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정책적인 응답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무상급식에 대한 인지는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무상급식 학생(96.4%)이 유상급식 학생(72.8%)보다 높았으며, 알게 된 경로는 무상급식 학생은 부모님, 유상급식 학생은 학교 선생님이 가장 높았다.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면 급식을 거부한다는 응답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유상급

식과 무상급식 학생 모두 86.4%, 66%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 변화에 대해 다시 물었을 때 유상급식 학생은 저하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77.6%) 실제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은 무상급식으로 전환 후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다(74.4%)고 서로 상반되게 답하였다. 무상급식 학생의 결과는 무상급식 경험을 통해 실제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경험하기 전에는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경험하지 않은 유상급식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급식의 질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의 실제 급식 만족도를 평가했을 때 국 종류의 다양성을 제외한 반찬 배식량의 적당성, 반찬의 종류, 음식 온도의 적당성, 음식과 식수 위생상태의 만족도, 조리종사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무상급식 학생의 만족도가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았다. 종합적인 급식의 평균 만족도도 무상급식 학생(2.3점)이 유상급식 학생(2.5점)보다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50.6%로 부정적인 응답인 9.8%보다 훨씬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Park 등(2012)의 선행연구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남학생의 급식 만족도는 일반학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상급식 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을 비교,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만을 해석하면,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의, 필요성, 효과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지만, 실제 급식요소를 세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무상급식에 따

른 질 저하 우려 등으로 기대치 대비 만족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 16개 시·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학교급식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질 속성은 ‘음식의 맛’이라고 하였으며(Yang 등 2013) 실제 중학생의 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보고도 있다(Kim 등 2002). 이와 같이 급식 만족도의 중요한 속성인 ‘음식의 맛’은 본 연구에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마다 급식 만족도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Yang 등(2013)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5,760명의 급식 만족도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6.2점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급식 만족도보다 높았다. 또한 본 조사 결과는 Lee & Park(2010)의 고등학생 692명의 급식만족도 평가 연구에서 5점 만점 중 2.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약간 낮았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급식 만족도는 보통인 3점에 미치지 못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무상급식 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실질적인 급식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무상급식 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일반 특성이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차이로만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본 조사의 무상급식 학교는 면단위 농어촌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읍지역인 유상급식 학생집단에 비해 열악한 급식환경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을 가능성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전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급식 변화에 따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시점에서 무상급식과 유상급식 학생을 동시에 비교 분석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유상급식 2개 중학교와 무상급식 2개 중학교 1~3학년 남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생각,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급식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유·무상급식 간에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평균 연령은 유상급식 학생 13.1세, 무상급식 학생 12.8세였으며, 체중과 체질량지수는 유상급식 학생이 58.5 kg과 22.7 kg/m<sup>2</sup>, 무상급식 학생이 55.9 kg과 21.9 kg/m<sup>2</sup>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유상급식 학생의 경우 전문직이 52.4%인 반면, 무상급식은 자영업이 60.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평균 수입은 유상급식 학생의 42.8%가 300~500만원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던 반면, 무상급식은 100~200만원이 40.8%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2. 학교급식이 필요한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학생이 88%, 무상급식 94%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급식을 먹는 이유는 유상급식 학생의 32.4%가 학교에서 먹으라고 해서라고 답하였고, 무상급식의 33.6%는 영양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3. 무상급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학생이 72.8%, 무상급식이 96.4%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P < 0.001$ ).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저하되면 급식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무상급식 학생 각각 86.4, 66%였다( $P < 0.001$ ).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에 대해 유상급식 학생의 77.6%는 저하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의 74.4%는 저하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4. 급식 만족도를 평가했을 때 반찬 배식량의 적당성, 반찬의 종류, 음식 온도의 적당성, 음식과 식수 위생상태의 만족도, 조리종사자의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무상급식 학생의 만족도가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았다. 20개 항목의 평균 만족도도 무상급식 학생이 2.3점으로 유상급식 학생의 2.5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 < 0.05$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무상급식 학생은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였지만, 실제 급식 만족도는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아 학생들의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인식은 긍정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급식현장의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해 인식의 전환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국가가 연계된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 Policy issue analysis.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eongju. pp.11-17
-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12): A research on free school lunch program and its satisfaction in Chungnam.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Gongju. pp.10-25
- Ha BU (2010):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free school lunch program. Teach Political Sci Res 17(3):137-157
- Ha BU, Kim MS (2012): A stud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chool lunch service. J Korean Policy Stud 12(3):345-364
- Hyun GA, Lee IH (2013): Comparative analysis on perceptions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free school meals finance. Res Educ Sci 15(2):49-73
- Kang EH (2011): Research about free lunches and staff recognition. Masters degree thesis. Sang Ji University. pp. 66-67
- Kim KA, Kim SJ, Jung LH, Jeon ER (2002):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school foodservice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Gwangju and Chonnam area.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8(6):579-585
- Kim MH (2012): Survey of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on the free school meal in rural area of Changwon. Masters degree thesis. Gyeongnam University. pp.115-117
- Lee GJ (2009): Free lunches for parliamentary policy debate kit. Korean Political Sci Assoc 8(1):27-31
- Lee KH, Park ES (2010): School food service satisfaction and menu pre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Iksan, Cheonbuk. Korean J Community Nutr 15(1):108-123
- Lee SH (2011): Perception of the free lunch service system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asters degree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54-56
- Ministry of Education. A course of study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50325>. Accessed September 9, 2013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2000): School lunch program to support needy student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Seoul. pp.3-12
- Oh YM, Kim MH, Sung CJ (2006): The study of satisfaction, meal preference and improvement on school lunch program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 Jeonju. Korean J Dietetic Assoc 12(4):358-368
- Park JY, Kim EJ, Kim MH, Choi MK (2012): Comparison of meal satisfaction,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school lunch support among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in Incheon. J Korean Diet Assoc 18(1):1-15
- Song HJ, Moon HK (2010): Comparing school lunch program served at dining room with program at classroom for sanitation and contentment at one middle school. Korean J Community Nutr 15(3):369-378
-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7): Foodservice management manual 2.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Seoul.

pp.57-107

Yang IS, Yi BS, Park MK, Baek SH, Chung YS, Jeong JY, Kim YJ, Kim HY (2013): Evaluation of the quality attribute and satisfaction on school foodservice in 2010. Korean J Community Nutr 18(5):491-504

Yang SI (2013): An analysis on the conflict of local welfare

policy surrounding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 focused on the free school meals policy of Seoul. Korea Res Local Admin 27(1):125-154

Yoon HS (2012): The limitation, product, and prospect of dispute over universal welfare policies in Korea. Korean Soc Secur Stud 28(4):75-104